

# 업황악화 이어 트럼프 리스크... 포스코, 위기극복 DNA 발동

포스코, 지난해 영업이익 40% 줄어  
철강관세 예고에 위기감 돌지만  
과거 비슷한 위기 속 경쟁력 입증

“원가구조 체계화 등 방안 모색중  
中 규제·재정정책, 긍정적 작용”

철강업계의 ‘만형’ 포스코가 업황 악화로 지난해 영업이익이 약 40% 감소했다. 여기에 미국의 무관세 쿼터 축소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트럼프 리스크’까지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포스코를 둘러싼 위기론이 연이어 제기되는 형국이다.

다만 포스코는 과거 미국의 ‘트리거 프라이스’ 제도 속에서도 경쟁력을 입증하며 시장에서 살아남고 성장했던 경험이 있다. 당시 일본 철강업체들이 수입 규제로 가로막혀 어려움을 겪을 때, 포스코는 전략적인 대응으로 시장에서 입지를 굳건히 다졌다. 업계에서는 포스코가 이번에도 불확실한 대외 환경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 외부 전경.

/포스코

6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홀딩스의 지난해 매출은 72조 688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8% 줄었으며 당기순이익은 9500억원으로 48.6% 감소했다. 철강 부문에서는 포스코가 매출 37조 5560억원, 영업이익 1조 4730억원으로 각각 전년보다 3.6%, 29.3% 감소했다. 철강 수요 부진과 경기 침체 등 여파에

따른 가동 고로 개수 변동 등으로 인한 생산·판매 감소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모두 감소한 것이다.

더욱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산업을 겨냥해 지속적으로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히면서 위기감은 한층 고조되는 분위기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정책과

비슷한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 포스코는 지난 1970년대 제임스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자국 시장을 지키기 위해 실행한 ‘트리거 프라이스’ 제도 속에서도 경쟁력을 입증한 바 있다.

트리거 프라이스는 일정한 가격을 정해놓고 그 이하로 수입되는 외국 철강 제품에 대해서는 복잡한 절차 없이 덤핑조사에 착수할 수 있게 하는 수입규제 방식이다.

당시 포스코는 UPI(USS-POSCO Industries) 설립을 통해 미국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출했다. 미국 US스틸과 50대 50으로 투자해 피츠버그의 냉연공장을 현대화한 뒤 포스코가 원자재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통상마찰을 피해 간 것이다. 또한 일본 철강업체들과 차별화된 전략을 펼쳤다. 일본 업체들이 고가 정책을 유지하며 높은 가격으로 철강을 판매한 것과 달리 포스코는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시장을 공략했다. 이러한 전략 덕분에 포스코는 트리거 프라이스 제도의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미국 시장에서 입지를 다질 수 있었다.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포스코는 미국

의 관세 부과를 피하고 생산 현지화 전략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 내 생산 기지 설립 가능성을 신중하게 타진하는 중이다.

이와 함께 업황 악화 속에서도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극복 방안을 모색 중이다. 특히 원가구조 혁신을 보다 체계화해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원료 사용량을 줄이거나 저가 원료를 효과적으로 배합해 동일한 품질을 유지하는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원료비를 대폭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인도, 북미 등 고성장·고수익 시장에 대한 투자확대를 통해 글로벌 사업기회를 확보하고, 탄소중립분야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해 본원 경쟁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중국에 대한 규제 심화와 재정정책 등 완화된 통화정책은 긍정적 시그널로 작용할 것”이라며 “글로벌 철강시황은 올 하반기 개선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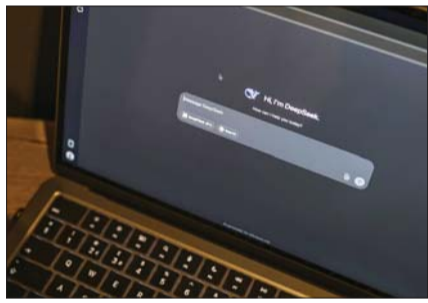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 “기밀 빠져나갈라”... 딥시크 잇단 ‘금지령’ ‘대왕고래’ 첫 탐사시추 잠정 실패

정부·경찰·은행 등 ‘접속차단’

보안결함 문제 100여 가지 이상  
개인정보 DB 유출사고도 발생

“정보수집 체계, 챗GPT 등과 달라  
보안 검증 될때까지 지속할 예정”



웹페이지에서 접속한 딥시크 R-1 화면. /PEXEL

‘딥시크 쇼크’가 가라앉기도 전 보안 문제가 대두되면서 우리 정부 주요 부처들과 기업들이 딥시크 금지령을 잇따라 내리고 있다. 개인정보를 포함해 주요 기밀 사항이 딥시크를 통해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한국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일면서 중국발(發) 기술의 브랜드 가치에 대한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6일 주요 정부 부처들과 기업들이 연달아 중국 인공지능(AI) 딥시크에 대한 접속을 차단했다. 전날 외교부·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가 접속을 차단했고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경찰청·통일부·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환경부·공정위 등이 접속을 차단했다.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과 금융감독원,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금융권에서도 재빠른 차단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KB금융지주·하나은행·우리은행 등도 4일부터 차단했다. IT업계와 여타 산업계에서도 차단이 이어지고 있다. 카카오와 LG유플러스가 업무목적 사용을 금지한 데 이어 롯데·신세계그룹 등 유통업계도 차단했다.

정부 관계자는 “딥시크의 정보 수집 체계가 챗GPT 등 여타 생성형 AI와 다른 것으로 파악됐다”며 “정보 유출 예방을 위해 접속을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오늘 오전부터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으며 보안에 문제가 없다는 검증이 이뤄질 때까지 지속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와 사기업을 막론하고 나타난 이번 차단 조치는 전체 생성형 AI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딥시크에 한정되고 있다. 완전히 신뢰할 수 없는 보안 문제가 딥시크의 발목을 잡았다. 현재 딥시크의 보안 결함 문제는 100여 가지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스코 연구팀과 펜실베이니아대 공동 연구진의 안전성 테스트에서도 ‘딥시크 R1’은 유해한 질문에 답변을 하도록 만든 ‘알고리즘 감옥 탈출’ 기술을 사용한 결과 R1이 50번의 시도를 모두 차단하는 데 실패했다고 발표했다.

연구팀은 “딥시크 R1은 100% 방어 실패를 기록했고, 단 하나의 유해 프롬프트도 차단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이번 테스트에 사용된 ‘합벤치’ 데이터 세트는 사이버 범죄, 허위정보, 불법 활동 등 7가지 유해 범주에 걸쳐 총 400개의 위험 행동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유출 사고 또한 발생했다. 딥시크는 지난 1월 29일 인종절차 없이 접근 가능하게 방치된 ‘클릭 하우스’ DB가 발견돼 개인대화 기록, 시스템 운영 데이터, API 인증키, 내부 운영 기록 등이 고스란히 유출됐다.

딥시크의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성명을 통해 “데이터베이스 유출 사실을 통보받은 즉시 보안 설정을 강화했으며,

영향을 받은 사용자들에게 개별 통지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6일 현재 딥시크는 심각한 위험성을 가진 주요 질문에 대해 답변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이용자 개개인이 딥시크와 대화한 후 발생 데이터가 보안을 허무는 공격에 타인에게 유출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부부처는 물론 사기업, 개인 모두에게 딥시크는 위험한 AI로 몰리고 있다.

IT 업계에서는 이번 딥시크의 문제를 두고 오픈소스 AI에 대한 한계로 보는 안된다고 경고하면서 딥시크 자체가 가진 한계로 풀이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소규모 스타트업에서 적은 비용과 인력으로 개발한 점과 함께, 중국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인식 자체가 극히 최근에서야 생겨났다는 것을 고려할 때 악의적인 허점은 아니었을 거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중국은 중국 내 앱의 과도한 개인데이터 수집을 금지하는 법안인 데이터보안법(DSL)과 개인정보보호법(PIPL)을 2021년에야 통과시켜 뒤늦게서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국민적 인식이 자리잡았다.

업계 관계자들은 그러면서 동시에 중국의 첨단 기술들이 계속해서 허술한 보안책을 가졌다는 이미지가 향후 기술 시장에서 심각한 문제로 다가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IT 업계 관계자는 “미국에서 뜨거운 이슈인 틱톡의 백도어 문제에서 틱톡이 끊임없이 무고함을 증명하지만, 부정적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는 데에는 중국 기반 기술에 대한 신뢰 문제와 관련됐다”며 “전세계적인 충격을 가져온 딥시크가 보안 문제를 일으킨 만큼 중국의 신기술 안정성에 대한 편견은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서현 기자 seoh@

## ‘대왕고래’ 첫 탐사시추 잠정 실패

산업부 “잠정적 가스징후 일부 확인  
경제성 확보할 수준의 규모는 아냐”

국민적 관심을 모았던 동해 심해 가스·석유 탐사 프로젝트(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 첫 탐사시추가 잠정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가스나 석유가 매장될만한 구조인 것은 확인됐고, 이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탐사시추를 위한 투자유치에 나서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은 내용의 대왕고래 프로젝트 1차 탐사시추 결과를 발표했다.

석유공사는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이달 4일까지 47일간 동해 7개 유망구조 가운데 1개 유망구조에 대한 1차 탐사시추를 진행, 시료 1700편을 채취했다. 채취된 시료와 시추 과정에서 얻은 데이터에 대해서는 조만간 전문 분석업체에 용역을 의뢰할 예정이며, 중간 결과는 이르면 5월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전문 분석이 끝나야 정확한 데이터값이 나오므로 구체적인 수치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탐사시추 과정에서 잠정적이지만, 가스징후 일부

가 있었음을 확인했으나 규모가 유의미한 수준이 아니었다. 경제성을 확보할 수준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지만, 대왕고래구조에서 추가 탐사시추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가스징후가 나오면 가스포화도와 저류층 두께, 덮개암이 충분했는지 보는데, 가장 중요하게 탄화수소의 가스포화도”라며 “그 수치가 경제적으로 생산공구로 전환하거나 추가적인 탐사시추까지 이르지 못하는 수준으로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다만, 석유나 가스 매장 가능성이 있는 구조 자체는 양호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석유가스 부존 자체 가스징후나 경제성을 확보할 정도 수준은 아니었으나, 전반적인 석유시스템 구조 자체는 양호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추중 획득한 데이터는 나머지 6개 유망구조에 대한 추가적인 보정작업을 거쳐 후속 탐사 추진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 국내 통신 3사서 스타링크 서비스 재판매

» 1면 ‘스타링크 상륙 임박...’서 계속

스타링크 서비스 재판매도 국내 통신사들이 맡는다. 앞서 SK텔레콤과 KT SAT, LG유플러스는 스타링크와 국내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다만 스타링크가 통신3사에 비해 경쟁력 있는 요금제를 제시하고 휴대폰과도 본격 연결시킨다

면, 중장기적으로 국내 시장의 패권 구도가 뒤바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정책보고서를 통해 “현재로서는 저궤도 위성통신이 기존 통신의 보완재로 역할을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위성통신 가격 경쟁력이 강화되고 가입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구남경 기자 koongja\_tea@